

국립돌리소

익산, 어린이집 운영계획 집중 점검

익산시는 맞춤형보육제도 시행 100일이 경과함에 따라 맞춤형보육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12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어린이집 운영계획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맞춤형 보육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영유아 종일·맞춤안 운영여부에 관계 없이 모든 어린이집의 재원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이 운영계획을 보호자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지난 8월에는 지역 내 어린이집 250개소에 맞춤형 보육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위해 2개팀으로 집중점검반을 구성해 일부 미흡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어린이집 42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익산=정왕원기자

익산시-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협업·현안사항 추진방안 모색

R&D 네트워크 중심 수출지향형 식품연구·개발 중심지로 성장 발전 등

익산시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는 지난 11일 협업 및 현안사항에 대한 추진방안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는 왕궁면 일원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정부기업 지원시설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이날 과천에서 익산으로 이전했다.

이날 영등동 모처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정현을 익산시장, 최희종 지원센터장을 비롯한 익산시와 지원센터 직원이 참석해 성공적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익산시와 지원센터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공동발전 방안을 마련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R&D 네트워크 중심 수출지향형 식품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성장 발전시키고, 인력양성, 원료공급 등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심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최희종 지원센터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익산시가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세

계 식품시장의 신중심으로 만들자며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준 정현을 시장과 시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현을 시장은 "지원센터가 익산으로 이전하고, 이따부터 정부기업지원 시설이 가동돼 산업단지 준공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관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익산시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익산=정왕원기자

군산시, 어린이 견학 프로그램 마련

군산시가 어린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견학 프로그램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 군산중앙유치원 원아 60여명은 구암동 소재 (주)세보에군산서비스센터 방문해 자동차 정비공정을 관찰하며 미래 자동차 기술자를 꿈꾸는 뜻 깊은 경험을 했다.

이날 어린이들은 내 고장에서 생산된 올란도·크루즈 차량의 수리과정을 지켜보고 자동차 판금과 도장과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평소 자동차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해경,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

경비합정 3척·항공기 동원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장인식)는 오는 16일 제인망 중국어선의 조업제개 시점을 앞두고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에 나선다.

특히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갈수록 흉폭해짐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경비합정 3척과 항공기를 동원해 해상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특별 단속에 돌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7일 인천 소청도 부근에서 발생한 해경 고속단정 침몰 사고의 용의선박에 대해서도 탐지활동을 강화해 발견 즉시 검거할 계획이다.

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불법조업의 심심박이 정선명령이나 검문검색에 불응하고 흉기 등을 사용해 공무집행에 저항할 경우 진압장비 및 총기류 등 모든 수단을 사용해 제압·나포에



나설 계획이다.

또 무허가 조업어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상 압수 조사 및 몰수 처분을 통해 불법조업에 따른 처벌을 극대화 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지휘에 나서는 장인식 서장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문제가 사회적 우려로 대두된 만큼,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우리 EEZ, 해역에서의 어업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점점 흉포해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에 필요하면 공용화기 사용과 선체충격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도주하면 공해상까지 추적해 검거하기로 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익산시 중앙지구대, 마한가요제 행사 순찰·교통정리 합동순찰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에서는 지난 10일 밤 시민경찰과 함께 1만명이 운집한 마한가요제 행사에 진출하여 합동순찰을 실시했다.

시민경찰은 월1회 경찰관과 함께 관내 우범지역을 합동순찰하며 현장 체험을 통해 지역치안 모·터닝 및 협력치안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 다중이 밀집한 현장에 투입되어 주변 순찰 및 교통정리 활동을 실시하였다.

행사장 주변은 비로 옆 도로는 차량 이동량이 많은 편으로 보행자들이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횡단보도 주변 배치되어 시민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하고, 행사로 인해 갑자기 증가한 차량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교통정리에도 동원되어 민·경 협력차이를 구현하여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치는 데 이바지 하였다.

/익산=정왕원기자

군산시, 20일~22일까지 '평생학습한마당' 개최

군산시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인 '평생학습한마당' 행사를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월명체육관 및 은파호수공원 일원에서 개최한다.

군산시가 주최하고 시민교육센터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배우는 기쁨, 함께하는 기쁨, 행복 가득한 평생 기쁨이라는 주제로 각종 무대행사과 학습결과물 전시행사, 다양한 영역의 평생학습을 직접 경험하고 참여

할 수 있는 체험행사가 다채롭고 풍성하게 펼쳐진다.

행사 첫날인 20일 월명체육관에서 열리는 군산시늘푸른학교 '문화한마당'은 고령의 학생들이 그동안의 학습 성과를 전시, 명랑운동회, 한글 골든벨, 학습장별 장기 자랑 등을 통해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축제의 장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21일과 22일 은파호수공원 제2주차

장에서 열리는 '평생학습한마당'에는 80여개 평생학습 기관·단체가 참여해 매듭공예, 한지공예, 한산모시 공예 등 다양한 평생학습 체험·홍보 부스를 운영 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자치센터 경진대회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20개 팀이 참여해 라인·밸리댄스 등 다채로운 경연을 펼치며, 서예, 문인화 등 60여개의 예술 작품이 전시 될 예정이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다양한 해양교육 프로그램 마련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청소년의 해양 의식 고취를 위해 다채로운 해양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10월 한달간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군산항과 방재대응센터 등의 견학을 통해 항만에 대한 역할과 해양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자 마련됐다.

이 프로그램에는 부안 백산중학교 및 위도초등학교(식도분교) 50명, 정읍 칠보고등학교 30명, 전북 전북 여자고등학교 18명 등 총 4개 학교 2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군산해수청은 이와 함께 군산청 소년수련관에서 해양강좌 '해양수산엔 바다특목'을 운영한다.

지난 5월부터 매월 둘째·셋째주

수요일 진행하고 있는 '해양수산엔 바다특목'은 누구나 해양 분야 전문가 강의를 편리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해양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된 강좌이다.

그 일환으로 지난 12일 군산 흥남초등학교에서 학생 140여명을 대상으로 바다의 안전지킴이 해양교육관센터와 '해수보다 강한 해양심층수! 그 다양한 활용 이야기'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또 오는 19일에는 군산청소년수련관에서 군산조선소 직업소개와 녹도에서 이어도까지 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 시행

군산시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자에 대한 하반기 방제작업을 이달 중순 본격 착수 내년도 3월말까지 대대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진행되는 방제작업은 매개충의 우화·활동시기가 끝나는 10월 중순부터 추진하게 된다.

시는 월명공원과 은파호수공원을 중심으로 12월말까지 1차 방제를 완료하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옥구·옥산·회현 등 읍면동 지역을 중심으로 3월 말까지 2차 방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군산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매개충 밀도가 높고 산이 낮아 재선충병 확산이 매우 빠르게 진행돼 방제에 어

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숲경질과 자벌레와 소나무좀의 혼성피해로 생육상태가 극히 불량하다.

이에 시는 재선충병 방제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모투베기를 연차별로 추진해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적극 나선 방침이다.

또한 익산시와 연계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선단지는 정읍국립관리소와 협업을 통해 공동방제를 추진하고, 벌제목은 목재기공업체인 (주)유니드에 납품해 자원화해 판매대금을 방제비용으로 재투입해 예산절감 효과까지 거둘 계획이다.

/군산=문정곤 기자

Large advertisement for Gunsan City featuring a child and various buildings. Text includes '평생교육을 갖춘 동북아경제수심 명품도시 군산' and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